

제1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 총평

코로나19 대유행의 힘든 상황에서 강한 공법 경시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강한 공법 경시대회의 첫 시제에서는 곧 현실에 도래할지 모를 새로운 기술(에스토니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가 일정한 민사 재판에 활용되고 있음)에 대한 법적 해결 원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제 의도가 다소 낮설었는지 법문에서 사용된 개념에 대한 고민 없이 쟁점과 결론을 피상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친 답안이 많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여전히 ‘정답 맞히기’에 몰두하는 획일적인 수험 법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많은 응시자들이 ‘AI 법관’ 상용화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 헌법적인 쟁점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재판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답안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서면은 내용만큼이나 형식적인 완성도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서면(의견서)이라는 점에서, 용어 사용은 적절했는지(지나친 겸양체나 낮춤말의 사용 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 조절 등) 역시 심사 기준으로 함께 고려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출제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답안이 찾기 어려워 고민 끝에 대상 수상의 영광은 다음 대회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수많은 응시자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법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총평을 마칩니다.